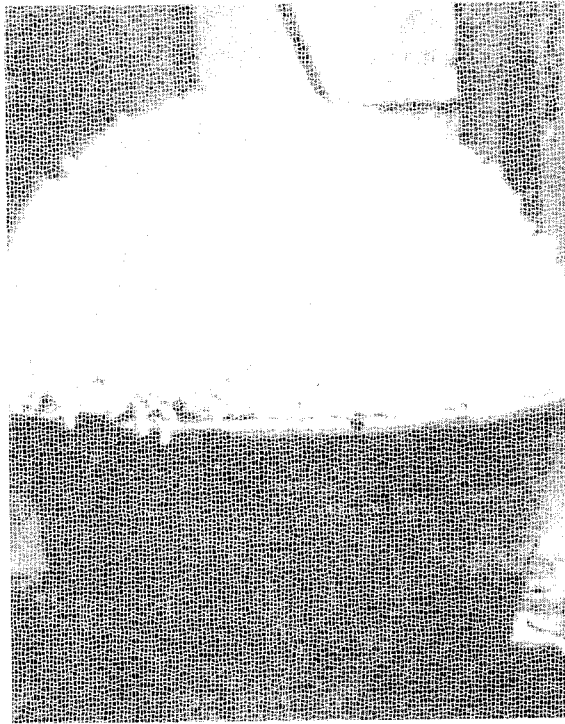


# 부정식품의 대명사 「농약콩나물」 그 오명을 벗어야 한다

**콩** 나물·두부는 동  
네복인가?

얼마전 대구에서 폐놀사  
건이 터졌을때 가장 심각  
하게 피해를 본 업체는 아  
마 콩나물업체와 두부업  
체이리라. 물론 다른 업체  
들도 많은 피해를 당한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존  
기간이 짧고 신선도가 생  
명인 콩나물과 두부는 조  
그만 이물질이 섞이거나  
온도가 높으면 금방 상하  
고 부패해 버린다. 그래서  
콩나물 업체들은 깨끗한  
콩나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오염이  
안된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위생시설  
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폐놀사  
건이 터지자 부정식품 일제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첫번째 대상품목으  
로 콩나물과 두부를 들었다. 마침내  
콩나물의 수거검사가 전국에서 일제  
히 시작되었고, 급기야는 지난 4월  
부산에서 다시 농약콩나물사건이 발  
생하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  
이 거짓말처럼 또 생긴 것이다. 아직  
자세한 조사는 남아있지만 농약콩



.....

최근 폐놀사건에 이어 터  
진 농약콩나물 사건은 모  
든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콩나물업체에도 크나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부정  
식품의 대명사가 되어버  
린 「농약콩나물」의 문제  
점을 살펴보고 그 대처방  
안을 밝힌다. [편집자주]

.....

나물사건은 이미 T.V와  
신문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도되었다.

사실 농약콩나물사건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런 이유에서인가. 경찰  
은 언젠가는 일어날 일처  
럼 때를 만난듯한 느낌이  
고, 그 뉴스를 접하는 일  
반시민들도 별 반응을 보  
이지 않는 것 같았다. 위  
낙 먹는 식품에 있어서 내  
형사건을 경험한 탓에 이  
제는 모두들 휴일에 흔히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럼

당연한 뉴스거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다.

콩나물은 우리나라만의 전통식품  
이요, 고유식품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콩나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너무나 부족하다. 식생활이 점점더  
고급화·서구화 되어가고, 수입개방  
으로 외국식품이 물밀듯이 수입되고  
있는 이 시대에, 국민들은 전통식품  
보다도 외국식품을 더 찾고 더 선호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영리를 위  
해서 외국식품을 다투어 경쟁하듯  
수입하여 선전하고 있으니 잘 모르

는 일반시민들은 무조건 외국식품이 좋은 걸로 알게 된다. 더욱이 어린 세대들은 전통식품에 대한 맛도 익히기 전에 외국식품에 길들여져 전통식품은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

정부 또한 전통식품이라고 말로만 떠들지 실제적으로 전통식품에 대한 이해가 편협하고, 그 정책 역시 부채 한 거나 다름이 없다. 전통식품을 계승·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통식품은 찬밥신세를 당해왔다. 게다가 간혹 전통식품이 부정식품 적발에 걸리는 날엔 전통식품 모두가 부정식품화되어 버린다. 전통식품은 전부 비위생적이고 불량식품이 되는 것이다.

**콩** 나물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우리나라의 고유식품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콩나물들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부정식품의 대명사가 돼버렸을까? 우리 모두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값싸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해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서일까? 사시사철 계절에 관계없이 시장 한모퉁이, 구멍가게 한구석에 콩나물은 '된장에 푹고추박히듯' 있으니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일까? 가장 흔한 식품이 되어 버린 오늘, 콩나물의 중요성을 들먹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쩌다 우리 콩나물업계가 이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자못 한심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제대로 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콩나물은 우리의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업계의 생존수

단이며, 바로 우리의 얼굴이다. 누구를 위해서 좋은 콩나물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바로 나를 위한 일이고 우리 업계를 위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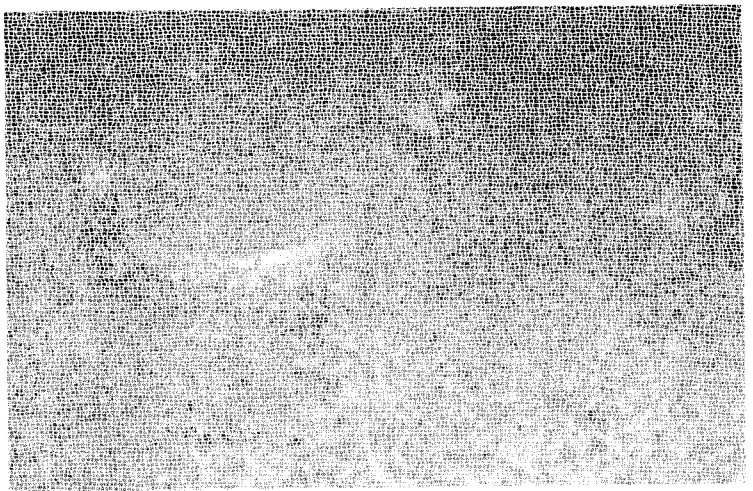
우리는 전통식품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며, 부정식품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전국에 2,200여 회원 중 한사람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우리 회원 모두는 치욕과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생존 자체도 위협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로 인한 정치적·물질적 손실은 업계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무엇이든 한번 잘못 인식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 오랜 시간이 흘러야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다. 그래서 우린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콩나물이 우리 식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

그런데 왜 이렇게 콩나물들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부정식품의 대명사가 돼버렸을까? 우리 모두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콩나물은 우리의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업계의 생존수단이며, 바로 우리의 얼굴이다.

”





양요리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차츰 순수한 우리 식품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처럼 우리의 땅에서 자란 음식이 우리 몸에 좋다고 하지 않는가.

**콩** 나물·두부가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젠 진부한 느낌마저 든다. 그만큼 두 식품이 우리 국민들과 친숙하기 때문이며, 없어서는 안될 식품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친숙하다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친숙한 이유로 친구 사이에 지킬만한 예의를 무시하는 거와 같다. 좋은 음식이라고 하기에 앞서 무엇이 얼마만큼 좋다는 확고하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오늘날은 믿지 않는 시대이다. 콩나물의 효용성을 재확인하여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소비자들에게 실감나게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는 콩나물이 불량식품이 되기 이전에 부정식품이 되지 않도록 행정관리를 비롯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식품위생문제만 나오면 마치 콩나물을 죄인 다루듯 하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콩나물은 아직까지 소관부처도 제대로 없지 않은가? 또 가공식품인지 농수산물인지조차 가장 기본적인 분류도 안돼 있지 않은가? 농림수산부와 보건사회부를 오가며 새우등 터지는 건 항상 우리 업계뿐이다.

우리의 콩나물이 부정식품화 되어 버리면 우리 전통식품의 이미지도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콩나물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농약콩나물'의 오명을 말끔히 씻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며 정부는 콩나물이 부정식품이 되기 이전에 부정식품이 되지 않도록 행정관리를 비롯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

이제 식품을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 사람들은 음식에서 영양가를 계산하고 맛을 따지고 멋을 즐긴다. 음식의 맛을 즐기기 위해 장거리에 있는 유명음식집을 찾아간다. 생활이 풍족해짐에 따라 온갖 식품이 지천으로 있다.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가 원하기만 하면 좋은 음식을 쉽게 구해 먹을 수 있다. 따라서 콩나물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식품도 소비자들이 먹지 않으면 팔 수가 없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즐겨 먹어야 한다. 그러자면 일단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콩나물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농약콩나물'의 오명을 말끔히 씻고 당당하게 다가가야 한다. 다행히 우리 서민들의 밥상엔 여전히 콩나물과 두부가 오르내린다. 더욱이 잘못된 식생활로 최근 성인병의 발생이 늘자 우리의 전통음식을 찾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조건 고단백식품·서

